

■ 2025년도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1차 서류 심의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12일(목) 14:00~15:1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효지, 류정식, 박장렬, 송성완, 안남일, 오진이, 정은영

본 사업은 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출판사, 기업과 예술대학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및 실습 등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최초 발표를 지원하며 창작 성과물을 기록하고 아카이빙 하는 등 향후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공모요강에 의거하여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행 역량을 40%, 예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진입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40%, 예비예술인의 투명한 선정과 참여 규모 및 사례 비율 등 지원 조건 준수 여부를 20%로 배분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2025년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에 68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에 39건, 총 1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결격을 제외한 105건에 대하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제출받은 모든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서류 심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심의위원은 회의에서 평가 요소를 재확인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신청단체 및 대학의 점수를 확정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사항을 평가점수에 가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2차 인터뷰 심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계획서의 대부분은 예비예술인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예술인들이 향후 전문예술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예술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 강화에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술단체 최초발표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의 경력과 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와 예비예술인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록 돕는데 구체성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체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단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잘 활용하거나 극복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고려한 계획인지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예비대학 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대학 및 참여단체의 역량에 더해 교과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와 교수진을 비롯한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비예술인이 졸업 후 현장으로 진출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턴십, 창취업 등 현장 연계 활동을 잘 계획하였는지도 신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인 만큼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최초발표지원 사업’과 ‘예비대학 예술인현장연계지원 사업’ 모두 ▲ 참여 예비예술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집하여 ▲ 권장하는 규모를 준수하고 ▲ 적절한 사례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는지도 놓치지 않고 공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차 서류 대면 심의를 통해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30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20건, 총 50건의 신청 단체와 대학을 결정하고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미선정된 단체와 대학에게는, 신청한 단체와 대학 모두 예비예술인의 성장과 현장 예술인으로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의미 있고 충실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부득이 순위를 정하다 보니 2025년에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관심과 의지라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익년의 사업에도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5년도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2차 인터뷰 심의
- 회의일시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2024년 12월 18일(수) 10:00~18:10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 2024년 12월 19일(수) 10: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효지, 류정식, 박장렬, 송성완, 안남일, 오진이, 정은영

본 사업은 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출판사, 기업과 예술대학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및 실습 등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최초 발표를 지원하며 창작 성과물을 기록하고 아카이빙 하는 등 향후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공모요강에 의거하여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행 역량을 40%, 예비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진입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40%, 예비 예술인의 투명한 선정과 참여 규모 및 사례 비율 등 지원 조건 준수 여부를 20%로 배분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30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20건, 총 50건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의는 지원 단체와 대학에게 공히 11분을 할당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1차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는 서류를 토대로 신청 단체 및 대학 관계자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평가요소별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중점 질의 하였으며 전체 심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각자 점수를 확정 하고 이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사항을 평가점수에 가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대부분의 계획은 예비예술인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예술가로 성장 발전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체성을 가지고 기획되었음도 설명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르별, 지역별, 단체와 대학별로 당면한 환경과 제약을 청취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현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비예술인의 발굴과 육성에 강한 열정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최초발표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실천 가능성, 예비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방안 등을 중점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지원조건 준수 여부도 예산 계획 등에 의거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예비대학 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대학 및 참여단체의 경력과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졸업 후 예술 현장으로의 진출을 돕는 발표 계획과 교과 과정의 수립, 인턴십이나 창·취업 연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비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 지원’ 20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12건, 총 32건의 신청 단체와 대학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단체와 대학의 경우 지원 예산액을 수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 심의를 통과할 만큼 충실히 준비한 지원 단체와 대학들인 만큼 최종 선정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인터뷰 심의에 참여한 단체와 대학 전원은 최종 선정되어도 모자람이 없는 준비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되지 않은 단체와 대학에게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아쉽게도 이번 연도에는 부득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 단체와 대학 모두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만큼, 본 사업에 계속해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위원 전원이 각별히 유의하고 유념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